

산업안전지도사제도의 도입 취지와 자격취득과정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안전전문가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5년 도입된 산업안전·지도사제도는 1996년 제1회 196명 지도사 배출 이후 한동안 후속적인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이 인간과 기계, 기술 등으로 갈수록 복잡하게 얽힐수록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단편적인 전문지식만으로 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지식뿐 아니라 인간과 타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통찰력을 갖춘 최상위 수준의 안전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최고의 안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부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지도사제도의 보완을 거듭하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사들을 배출, 제도를 정착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술사의 어떤 자격증보다 더 포괄적인 시험과목과 시험횟수,

즉 전문과목과 함께 기업경영 등 경영에 대한 기본 지식, 인간심리 등이 포함된 인간공학 등의 과목과

1년에 단 한번, 1차, 2차, 3차 시험이라는 수차례의 선발과정을 거치고

그런 선발과정을 거친 후에도 3개월이라는 긴 연수기간을 거쳐 지도사등록을 허용합니다.

지도사 시험과 3개월 연수교육을 위해 상당기간 생업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산업안전지도사를 기사취급하다니요?

타정부부처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최고의 안전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십년간 제도를 다듬고 활성화시켜 이제 겨우 자리잡아가는 산업안전지도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저급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힘을 가진 기관의 횡포가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